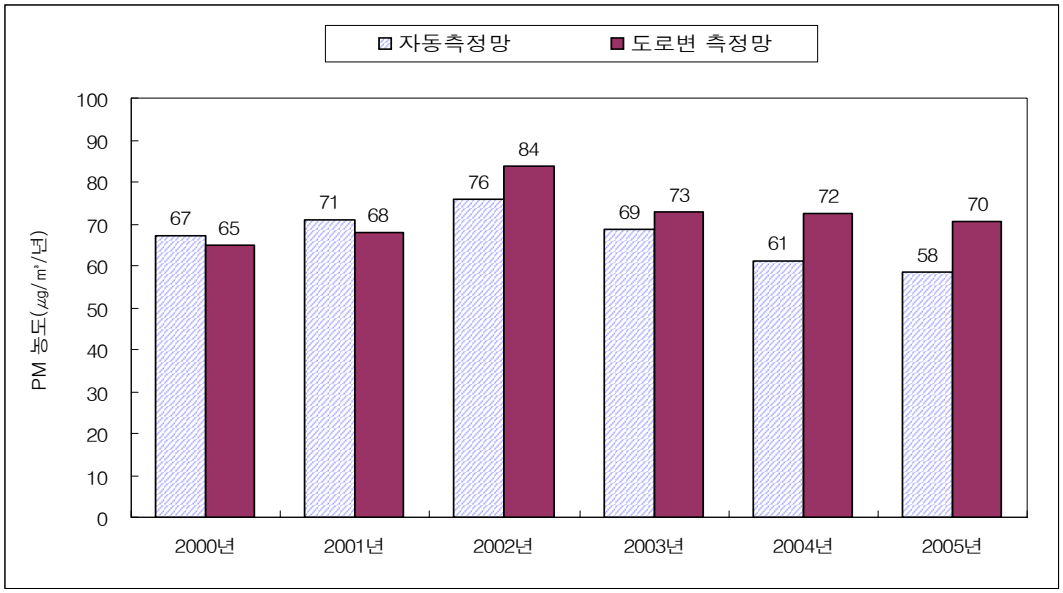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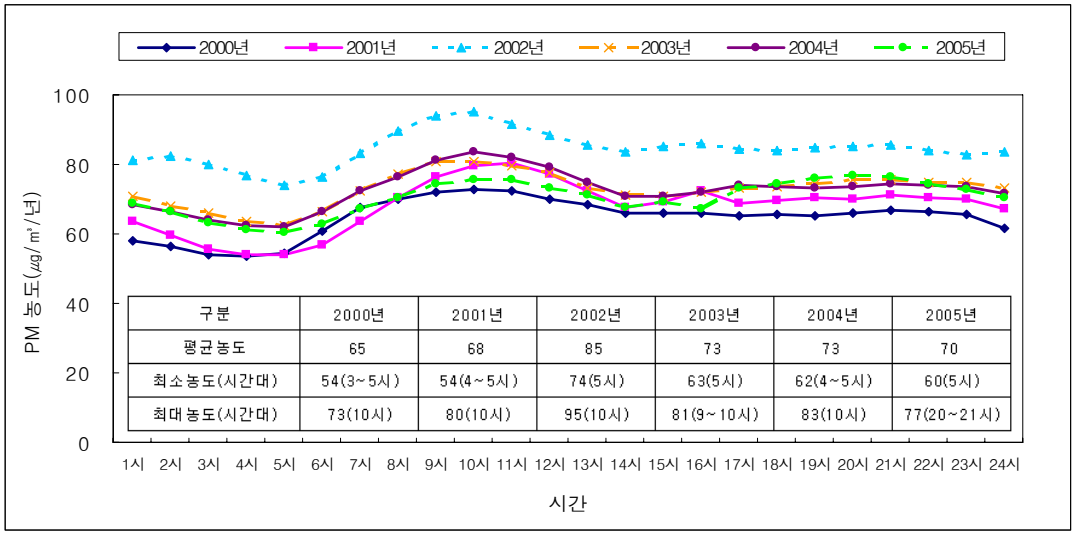
1.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수준 변화

2000년~2005년 기간동안 서울의 미세먼지(PM10) 오염 수준은 황사 유입이 가장 심한 시기였던 2002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. 특히 2005년에는 그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온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에 힘입어 처음으로 서울시 환경기준인 60㎍/㎥을 달성하였음. 그러나 자동차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오염수준이 높으므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저공해화 사업 추진과 함께 합리적인 교통수요 관리가 더욱 필요함.



[그림 1] 연도별 서울시 미세먼지(PM10) 평균 오염도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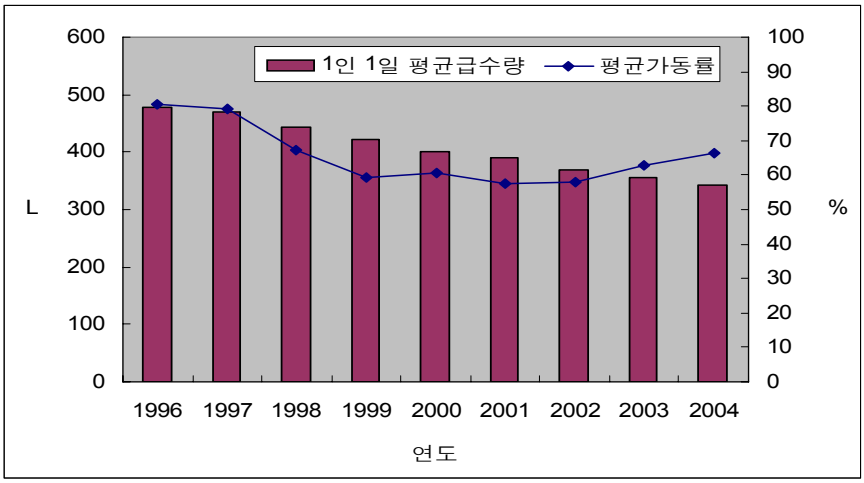


구분	2000년	2001년	2002년	2003년	2004년	2005년
평균농도	65	68	85	73	73	70
최소농도(시간대)	54(3~5시)	54(4~5시)	74(5시)	63(5시)	62(4~5시)	60(5시)
최대농도(시간대)	73(10시)	80(10시)	95(10시)	81(9~10시)	83(10시)	77(20~21시)

[그림 2] 도로변 측정소: 시간대별 미세먼지 오염도 변화(2000~2005년)

2. 서울시민의 상수 사용량의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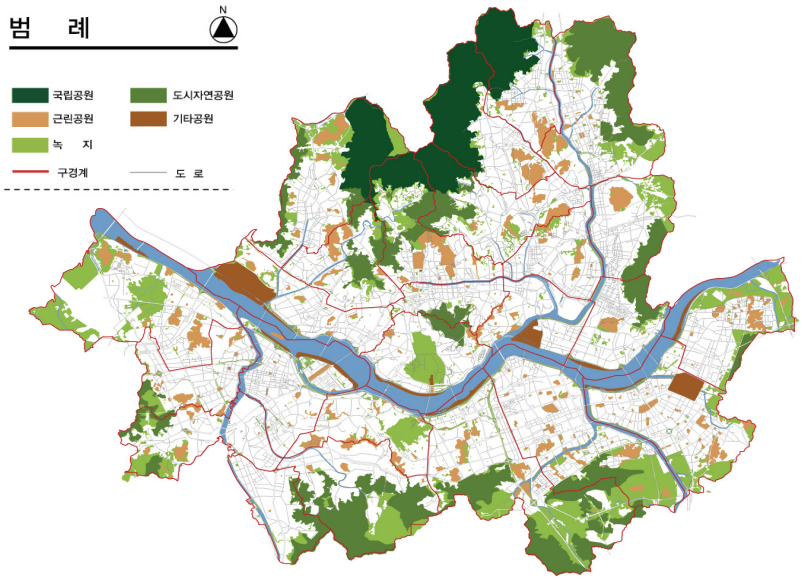
1인1일 급수량이 1996년 478L에서 2002년 343L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관로의 정비에 따른 누수 감소, 절수형 설비의 보급 등에 기인하고 있음. 이에 따라 정수시설의 가동율도 1996년 80.6%에서 2004년 66.3%로 낮아졌음.



[그림 3] 급수량과 정수시설 가동율

3. 서울의 공원 녹지

서울시의 공원수는 1,954개소이며 전체면적은 164.22㎢로 1인당 공원면적은 15.95㎡임. 유형별로는 도시자연공원 61.39%, 근린공원 34.16%, 어린이공원 1.57%, 묘지공원 2.83%, 체육공원 0.05%로 도시자연공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. 도시자연공원은 도시외곽의 산림지역에 편재되어 시민의 일상생활에 주는 혜택은 적은 편임.



[그림 4] 서울시 공원녹지 현황